



주 제:	“유혹”	“사순 제 1 주일”	2008년 2월 10일
복음 묵상:	마태 4,1-11	창세 2,7-9;3,1-7	로마 5,12-19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유혹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과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유혹들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주저앉았습니까? 이러한 유혹과의 만남과 그 싸움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곳저곳 상처입고 여기저기 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의 만남이 단순히 삶의 힘겨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혹에 넘어가 주저앉았을 때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 실망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배울 수 있고, 유혹을 극복할 때는 내 자신에게 대전함을 느끼며 더욱 성숙한 또 다른 나를 찾을 수 있기에, 유혹은 우리 삶의 작지 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다양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 안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난을 확신에 찬 굳건한 믿음으로 극복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간직한 믿음은 세상살이 안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마귀들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 이길 수 있는 회개와 반성입니다.

사순시기는 예수님이 수난과 고통, 죽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차차 마귀의 꼬득임에 빠져 하느님을 뒷전에 두고 그럭저럭 살아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건들 안에서 진실한 회개와 참회의 실천으로 하느님께 뛰쳐나갈 수 있을 때 그분의 부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 최종운 신부님 강론 중에서)

일요 기도회	매주 교중미사후 레지오실	2008년 2월 10일(일요일)
진행: 박혜숙 소피아		참가 가족: 8명
복음 묵상:	시편 51 장	

가르침 권요한 형제님 “성령의 은사”

은사는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공짜로 주시는 것으로,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교회를 쇄신하기 위해 각자의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기도회원은 초대교회의 마음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도구로서 자신감을 갖고 성령쇄신 운동에 참여 하여야겠습니다.

공지사항

* 찬미미사 및 치유예절 : 2월 19일 화요일

봉사해주실 Charlie & Betty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적극 알립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향한 ‘식별’의 은사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 문종원 신부님 사순 특강 : 3월 7일 금요일 7:30pm

* 북가주 성령기도회 봉사자 피정 :

- 일시 : 3월 8일 토요일 8:30am ~ 6pm
- 장소 : Presentation Center (Los Gatos)
- 주제 : ‘나 자신을 찾아서’
- 강사 : 문종원 신부님
- 회비 : \$35

성령세미나를 받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복음 [마태 3,13-17]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 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 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1분 명상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눅암 진장춘'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습니다.
먼저 자만심이나 열등감, 경계의 울타리를 허무십시오.
겸허한 사람은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마음 속에 헛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흠처갈 것이 없습니다.
먼저 잣대를 버리고 마음의 무장 해제를 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마세요.

상대방을 칭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편하고 만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오히려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경계를 풀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인간 마음속 선한 본성의 세계에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지상의 행복입니다.